

##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

성경: 레 3:1-5, 롬 15:33, 요 14:27, 엡 2:14-17, 4:3, 골 1:20-22, 3:15

### I. 삼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 롬 15:33, 살후 3:16, 갈 5:22.

A.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다 — 롬 15:33, 살전 5:23, 히 13:20.

1. 우리의 아버지는 평안의 하나님이시며, 평화로운 본성을 지닌 평화로운 생명을 갖고 계신다 — 롬 15:33, 살전 5:23.
2.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평안을 누린다 — 롬 5:1.
3.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 자신이다 — 요 14:27, 빌 4:7, 9.

B. 신약은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의 하나님을 모두 말한다. 하나님의 평안과 평안의 하나님은 사실상 하나이다 — 빌 4:7, 히 13:20.

C.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우리 안으로 주입되신 평안의 하나님이다 — 롬 16:20, 빌 4:9, 요 14:27.

D.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는다 — 요 16:33.

1.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다. 이러한 근심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 요 14:1.
2.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두 영역이 나오는데, 하나는 온갖 근심거리들이 있는 물질적인 영역(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평안이 있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II.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류 가운데에는 많은 규례와 풍습과 습관, 그리고 생활하고 경배하는 여러 방식이 생겼으며, 그 모든 것은 인류를 분열시키고 흩어지게 하고 혼란시켰다. 각 민족과 인종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으며, 따라서 인류 가운데에는 화평이 없고 오직 적대감과 불화와 전쟁이 있을 뿐이다 — 엡 2:14-15, 비교 시 46:9, 사 2:4, 9:6-7, 11:6-9, 미 4:3, 슥 9:10.

III.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주 안에는 화평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 엡 2:14-15, 골 1:20, 레 3:1-17, 7:11-38.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11 (계속)

- A. 화목제물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레 3:1-5, 엡 2:15.
- B. 화목제물이라는 예표의 성취와 실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고 우리 서로 간에도 화평을 갖는다 — 엡 2:14, 골 3:15, 살전 5:13하.
- C.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화평을 가질 수 있다 — 롬 5:1, 12:18.
- D. 몸의 생활 안에서, 몸의 생활을 위해 우리에게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 엡 2:14, 4:3, 골 3:15.

#### IV. 에베소서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다 — 엡 2:14.

- A.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 둘 다를 위해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 곧 우리의 조화이시다.
  - 1.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죽음은 인간 생활과 종교의 서로 다른 규례들을 없애 버리고 폐하였다 — 엡 2:14-15.
  - 2. 인종들 간의 차이와 사회적인 계급의 차이가 없어졌다.
  - 3.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 안에서 분리시키는 규례들을 없애 버리시고, 즉 적대감을 소멸하시고, 또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이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
  - 4. 한 몸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 엡 2:16.
  - 5.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되는 모든 것이 종결될 때에만 화평이 가능하다 — 골 1:20, 2:14-15, 3:15.
  - 6.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가까워졌다 — 엡 2:13, 18-19.
- B.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오셔서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므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심지어 전파하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 엡 2:17, 골 1:20, 고전 15:45하, 고후 3:17상, 요 20:19, 21, 26, 14:27, 16:33.

## 레위기

### 메시지 11 (계속)

- C.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는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지켜야 한다 — 엡 4:3.
1. 그리스도는 인류 가운데서 규례들 때문에 생긴 모든 차이점을 십자가 위에서 없애 버리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몸을 위해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이 모든 믿는 이를 함께 매야 하고, 이처럼 매는 띠가 되어야 한다 — 엡 2:15, 4:3.
  2. 우리가 교회생활을 실행하면서 십자가 위에 머문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이 매는 띠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띠로 그 영의 하나를 지킬 것이다 — 마 16:24, 롬 6:6, 갈 2:20, 엡 2:15, 4:3.
  3. 성막에서 연결하는 가로대는 화평의 매는 띠가 된 연합된 영, 곧 신성한 영과 거듭난 사람의 영이 하나로 연합된 영을 상징한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화평의 매는 띠는 우리의 영이 연결하시는 영이신 가로지르시는 영과 협력하는 것이다 — 출 26:26-29, 엡 4:3.
- D.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어야 한다 — 엡 6:11, 14-15.
1.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 대해 화평을 이루셨고,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 — 엡 2:13-17.
  2.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설 수 있도록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 엡 6:11, 14-15.
- E.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 롬 16:20.
1. 여기서 하나님은 사탄을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사탄을 짓밟는 것이 교회생활과 관계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롬 16:20.
  2.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이다 — 엡 6:10-18.
  3. 사탄이 우리의 발아래 짓밟히게 되는 것은 몸의 실지적인 표현인 합당한 지방 교회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 롬 16:1, 4, 20.
- V. 골로새서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화목제물이다 — 골 1:8, 20-22, 2:19, 3:15.
- A.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은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평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 골 1:20.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11 (계속)

- B. 우리는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 골 3:15.
- C. 몸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은 누구도 참된 화평을 갖지 못한다. 몸을 의존할 때 진정한 화평을 얻는다 — 갈 6:16.
- D.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일 가운데 판정을 내리고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골 3:15.
  - 1. ‘판정을 내리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 2.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이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화평을 갖게 될 것이다 — 골 1:20, 3:15.
  - 3. 그리스도의 화평의 판정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몸의 지체들 간의 마찰은 사라진다. 이럴 때 교회생활은 하나와 달콤함 안에 보존된다 — 골 3:12-15, 롬 12:4-5, 18, 14:19, 히 12:14.
  - 4.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마지막 발언을 하시며,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다 — 비교 사 9:6-7.
  - 5. 우리가 보좌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분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 6.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모든 방면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화평의 주님께서 모든 방면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화평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 히 12:14, 살전 5:13, 살후 3:16, 롬 12:18, 14:19, 막 9:50, 딤후 2:22, 약 3:18, 마 5:9.